

담양군, 신규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민원 응대·기획 실무·청렴 공직자 자세·지역 문화 교육

4년 만에 개최...5년 미만 공무원 5회 거쳐 200명 교육 예정

담양군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5년 미만의 공직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기 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직원들의 준정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사회 적응력 향상과 청렴한 공직자 자세 및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담양의 문화를 바로 알고 전 직원이 홍보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문화가 담긴 관광지 견학도 함께했다.

군은 그동안 매년 신규로 임용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4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임용 5년 미만의 공무원에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총 200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 첫날에는 친절 및 민원 시 필요한 대처

능력 위주의 전문강사 교육을 시작으로 조직 구성원 간 올바른 대화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후배 공직자를 위해 강경원 행정국장 이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제 사례와 실무 위주의 보고서 작성요령,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 등 다양한 교육으로 참여자의 큰 호응을 받았다.

둘째 날에는 죽녹원, 해동문화예술촌, LP음 악충전소, 다미담예술구, 장평슬로시티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견학하며 담양의 역사·문화·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병노 군수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공무원의 교육 기회가 부족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문화관광시설 탐방을 계기로 전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담양을

알리는 홍보 요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곡성군, 감염취약시설 방역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난 3월30일 보건의료원 건강마루에서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감염병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및 결핵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방역 관리와 종사자 안전을 위해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건의료원과 시설별 방역 관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효과와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등 21개소 시설장 및 감염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의 개요 △손 씻기 생활화 △감염관리 담당자의 업무 △코로나19 감염관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예방접종 △코호트 격리 시설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의 방법 △결핵의 개요 △감염경로 △진단·치료 △전파예방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보급종 공급가격의 일부 차액지원 확정 안내

벼 포대당(20kg) 1만원·콩 포대당(5kg) 4천원 차액지원

화순군은 2023년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벼와 콩 보급종에 대한 차액지원 단가를 확정 안내했다.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정부 보급종을 신청·공급하는 농가(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급종의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을 일부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2023년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9천5백2십만 원을 확보하여 정부 보급종을 신청·공급받는 화순 관내 농가(농업경

영체)를 대상으로 벼는 20kg 1포대당 1만 원, 콩은 5kg 1포대당 4천 원의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농가가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산 보급종을 공급받았을 경우, 데벼 기준 20kg 1포대당 공급가격 44,880원에서 차액 지원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38,880원에 공급받게 되며, 일반콩 기준 5kg 1포대당 공급가격 27,800원에서 차액지원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23,800원에 공급받게 되는 것이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 공산면, '국내 최대 흥련 군락지' 우습제 봄맞이 새단장 생태공원 산책로 경관 및 환경 정비

나주 공산면 주민들이 지역 관광명소이자 국내 최대 흥련 군락지인 '우습제' 봄맞이 새 단장에 나섰다.

나주시 공산면은 지난 3월30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 첫 단추로 우습제 생태공원 산책로 경관 및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3월31일 밝혔다.

우습제 정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종권) 위원,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인숙)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주민들은 겨우내 공원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철쭉, 상록수 등 꽃나무 3000여주를 산책로 주변으로 식재했다.

이종권 주민자치위원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습제 가꾸기에 한 마음으로 앞장서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월례회의를 우습제 현장에서 개최해 오늘 식재한 꽃나무를 가꾸고 환경정화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지리산 스카이런' 체험시설 개장

구례군 광의면 운당리 지리산정원에 설치된 쥘와이어 체험시설 "지리산 스카이런"이 지난 3월31일 구례 300리 벚꽃축제에 맞춰 개장했다.

지리산 스카이런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높이차로 생기는 중력에너지를 이용, 탑승자가 개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빠른 속도로 짜릿한 스피드를 체험하는 활강레포츠로 국내 쥘와이어 체험 시설 중 최고 경사율을 자랑한다.

위탁사로 선정된 ㈜젤리너 코리아는 정식 개장 전인 지난 27일부터 3일간 관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시설과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지리산 스카이런은 홈페이지(guryezipwir.com)를 통해 예약한 후에 즐길 수 있다. 셔틀버스로 모노레일 탑승장까지 이동 후 모노레일로 환승하여 구례생태숲에서 지초봉 상부에 있는 정류장(해발 568m)까지 가서 안전 교육을 받고, 야생화 테마랜드 상공 1.1km를 쥘와이어로 하강하는 데 약 60분이 소요된다.

지리산정원에서의 힐링과 함께 액티브 체험까지 가능한 지리산 스카이런은 구례군의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박진호기자

'농업인 사관학교' 제16기 장성미래농업대학 힘찬 첫걸음

포도코칭학과, 발효학과 개설... 입학생 50명 농산업 리더로 육성

장성미래농업대학이 3월 30일 입학식을 갖고 농업 전문가 육성에 나섰다.

장성군에 따르면 제16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입학생 50명이 농업인회관 1층에서 열린 입학식에 참석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2008년 문을 연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금까지 166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농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기여해 왔다.

올해에는 포도코칭학과와 발효학과 두 과목을 개설했다. 포도코칭학과는 고소득 작물인 포도 재배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한다. 시설 관리부터 생육 시기별 재배기술 준수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수업을 현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발효학과 교육은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 관한 제조법과 원리,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분야별 발효 전문가를 초청해 수업을 진행하며, 수료생들이 주축이 되어 장성군 대표 발효식품 개발에 도전한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군을 '앞서는 일류농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